

폐광지역 보존을 위한 에코뮤지엄 개발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Eco-museum to preserve abandoned mine area

-Focusing on Taebaek Area-

유익성¹, 이예경^{2*}

Yu IckSung¹, Lee YeKyung^{2*}

요약

태백은 탄광산업에 의존한 산업구조를 지닌 지역으로 1960년대 산업화의 전초기지였으나,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석탄산업의 사양화 추세와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영세탄광의 폐광이 속출하면서 태백은 심각한 사회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번성했던 탄광마을은 그 영화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소외되고 낙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태백의 실태를 살펴보고, 태백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형태의 복지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태백 자체를 문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외부로부터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고 이곳의 주민들 스스로 보다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에코뮤지엄을 통하여 주민들이 자연환경과 역사에 자부심을 가진다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태백, 탄광산업, 지역보존, 주민참여

Abstract

Taebaek was the outpost of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which was dependent on the mining industry. However, Taebaek has undergone serious social structural changes due to the declining trend of the coal industry in the late 1980s and the government's rationalization policy of coal industry. As the industrialization progressed, the coal mining town was neglected and lagged behind.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 of Taebaek and looked for active welfare for residents. Taebaek itself was created as a cultural space, attracting a lot of visitors from outside, and seeking a way to make the residents more positive by themselves. Through the eco museum, residents can be proud of their natural environment and history, making Taebaek a much better place to live than before.

Keyword: Taebaek, Coal mining industry, regional preservation, residents participation

1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icksung.yu@kookmin.ac.kr

2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yekyung.lee@kookmin.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October 31.2016), Review (December 10.2016), Accepted(December 31.2016)

1. 머리말

태백은 탄광산업에 의존한 산업구조를 지닌 지역으로 1960년대 산업화의 전초기지였다. 당시 기본적인 원료산업과 에너지원으로 광산업은 중요하였기에 1, 2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태백은 신흥 광산 도시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석탄산업의 사양화 추세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영세탄광의 폐광이 속출하면서 태백은 심각한 사회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1987년 석탄산업의 정리가 본격화되던 시기 태백의 인구는 12만 명에서 급속하게 줄기 시작하였다.

결국 탄광이 생계수단이었던 주민들은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1995년 2월 27일 강원도 태백과 정선의 고한, 사북, 신동 등의 주민 4,500여명은 탄광촌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였다[1]. 그 결과, 정부 측은 주민들과 합의하였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그해 12월 제정되었다. 이 후 태백은 '레저관광도시 개발'이라는 취지에서 카지노와 리조트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발전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태백의 실태를 살펴보고, 태백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형태의 복지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태백 자체를 문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외부로부터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고 이곳의 주민들 스스로 보다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광산도시의 역사와 폐광지역의 현황

1) 광산도시의 형성

우리나라에서 광산개발은 삼한시대부터 2,000여년에 걸쳐 발달해 왔으며, 금과 은 광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이후 개광정책(開鑛政策)이 표명되면서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자원수탈의 목적을 가지고, 금과 은을 비롯하여 전쟁의 물자인 은·동·아연·망간·텅스텐·몰리브덴·흑연·석탄·형석·중정석 등이 개발되었다. 광복과 더불어 모든 광산개발은 일시 중지되었으나, 1948년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대한석탄 공사를 설립하여 석탄 산업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광산개발이 시작되어 광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광산 도시들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 10월의 연탄파동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석유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민영탄광들은 대부분 폐광하며 침체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침체 속에 1973년과 1978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되자 정부는 석탄증산에 박차를 가하자 광산도시는 다시 활성화되었다. 활성화된 시기도 잠시, 청정에너지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과 광산이 점점 더 깊어짐에 따른 석탄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석탄사업은 다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1986년 1월 석탄산업합리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탄광의 폐광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2) 폐광지역의 변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석탄산업 합리화가 진행되면서 전국의 많은 광산들이 폐광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광산도시인 태백시도 40여개가 넘는 탄광에서 2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전국 석탄생산량의 30%를 생산하고 있었으나 폐광이 진행되면서 12만명의 인구가 현재는 4만명으로 급감하였다.

결국 1995년 사북사태 이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폐광지역 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태백시와 더불어 강원도 폐광지역의 개발 기본 방향은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시키고, 동해안과 연계한 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즉, 지역개발 및 자본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특색 있는 국제관광도시로 개발하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이때 모든 사업은 자연환경보전에 중점을 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태백시의 관광전략은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웰빙 휴양관광지, 테마별 관광코스, 축제사업과 석탄 테마파크 등의 조성이다. 또한 이러한 광광지로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및 순환도로를 정비하는 등 관광 교통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레저스포츠포럼단지 조성하기 위해 서학레저, 모터스포츠 레저,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2].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 사업은 '강원 카지노 리조트 개발사업'이다. 이 지

역의 카지노는 특별히 내국인의 카지노 방문을 허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강원랜드의 고용인력은 총 3,188명이다. 여기에 협력업체 용역직원 1,581명을 합치면 강원랜드에 고용된 인원은 4,769명이다. 이 중 폐광지역의 출신비율이 62.8%이고, 협력업체는 98.4%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3].

이와 같이 레저관광도시로서의 태백시가 개발되고 있지만, 지역주민에게 돌아간 혜택에 대한 점은 아직 의문사항이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 주민들의 참여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 및 민간 사업체가 주도하여 수직적인 네트워크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의 참여가 미비한 개발은 진정한 의미의 지역개발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그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을 갖게 해주고 지원해주어야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3. 주민참여 중심의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1) 에코뮤지엄 도입을 통한 폐광지역복지서비스 개발

(1) 에코뮤지엄(Eco museum)

에코뮤지엄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박물관학자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 Henri Rivière, 1897~1985)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19세기 말부터 박물관의 유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유물에서 확대되어 문화와 장소의 개념을 포함한 사회적, 공간적, 역사적인 측면과 모두 연계되어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논쟁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논쟁은 1972년 산티아고 국제회의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제시된 박물관이 에코뮤지엄이다.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는 “에코뮤지엄이란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구상하고 구체화하여 활용하는 수단이다. 행정당국은 전문가와 함께 편의를 도모하고, 재원을 제공한다. 주민은 각자의 흥미에 따라서 자신들의 지식과 대처능력을 제공한다”라고 하였다[4].

다시 말하면, 정부와 외부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을 보존하고, 자연 및 문화유산을 보존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박물관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도 박물관의 주요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이룰 수 있게 한다.

[표 1] 종래 박물관과 에코뮤지엄의 비교 (조르주 앙르 리비에르, 1984)

[Table 1] Eco-museums in comparison with traditional museum

기존형 박물관	건물 + 수집품 + 전문가
에코뮤지엄	영역 + 유산 + 지역특성 + 연장자 + 지역주민 + 기업수집

(2) 태백의 에코뮤지엄(Eco museum)화

현재 태백시에는 현장 학습관과 체험강도, 관광사택촌의 시설을 갖춘 태백체험공원을 2006년 4월 7일에 개장하여 에코뮤지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예전 관광 강도의 모습이나 마을을 재현해 놓고, 실제로 사용하였던 기계나 물건들을 전시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관광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개관 직후부터 관람객 수가 저조하여 시설물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나, 하루 평균 수입이 13,000원정도밖에 되질 않고 있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5]. 이러한 결과는 마케팅의 문제일수 있지만 진정한 에코뮤지엄이 아닌 박제화된 박물관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관람객이 이러한 공간을 보고 체험할 수 있으려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관광사택촌의 일부인 노동자들의 사택을 개조하여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고, 그 마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관리, 감독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보다 친밀하고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연장자 또는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그 지역의 큐레이터로 양성한다면 보다 쉽게 에코뮤지엄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마을의 공간의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옛날 문화와 더불어 현재의 모습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박물관이나 여행지로서가 아닌 이웃의 삶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하나의 마을을 박물관 코스로 개발한다면 지역주민은 자신의 지역 역사를 알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며 지역의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람객은 다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함으로써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기억을 간직할 수 있다.

2)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한 의식고양

(1) 공공미술(公共美術)

공공미술이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뜻한다. 주로 도시의 공원에 있는 환경조각이나 벽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통적으로 공공미술은 공공(公共)의 개념을 장소와 관련시켜 작품을 만들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공(公共)의 개념은 더욱 확대되어 물리적 장소로만 여기지 않고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소통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지역공동체와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6].

변화된 공공미술은 예술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작업하는데, 이로써 순수미술과 공공성의 조화를 이루며 사회적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7]. 이러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 공동체까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2) 공공미술(公共美術)프로젝트를 이용한 태백의 발전방향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이르러 도시디자인과 결합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2006년 문화광장부가 ‘공공미술추진위원회’라는 기구를 결성하면서 점차 활발해졌고, 전국에서는 ‘아트 인 시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폐광지역도 역사적 재료를 이용하여 예술가들과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시 되는데, 지역의 역사나 이야기들을 모아서 예술작품으로 재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과정은 주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전문가와 예술단체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어 작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어린이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낸다면 학습효과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품을 생산해내는 작업 뿐 아니라 관람객에게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안내문과 같은 상시비치용 홍보수단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이 큐레이터가 되어 설명할 수 있다면 관람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도 있다. 주민과 관람객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한 번의 미술 프로젝트가 아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주민은 지역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마을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할 것이므로 지역 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4. 맺는 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번성했던 탄광마을은 그 영화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소외되고 낙후되었다.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돕고는 있지만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근본적인 지역발전을 이루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석탄은 산업화의 흐름에 자원의 가치가 줄어들었지만 번성했던 탄광마을의 역사는 지역주민들이 보존한다면 영원히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이란 유물이 존재한다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의 생생한 기억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 주민들 주변의 자연환경과 도시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진다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1] [Gangwon Province 26] Gohan-Sabuk a fight for survival, The Kangwon Ilbo. (2005)
- [2] J. K. Bae,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0).
- [3] Kangwon Land Management Planing Team in the Office of Planning & Coordination (2013)
- [4] K. Ohara, The village is full of treasures, Arche Publishing House, Korea (2008)
- [5] Taebaek coal mine park of 13 billion won, daily income 13,000 won, Chosun Ilbo. (2011)
- [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0963&cid=40942&categoryId=33048>
- [7] M. Y. Nam,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2009).